



즉시 배포용 뉴스
오렌지 카운티 보안국 공공 대외 업무 부서, 714-904-7042

수사관들이 2022년 6월 스탠튼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탠튼(2023년 7월 6일): 7월 5일, 오렌지 카운티 보안국 소속 수사관들이 세 명의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22년 6월, 노인 폭행을 말리던 피자 배달부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6월 28일 오후 7시 21분, 오렌지 카운티 보안국 소속 경찰관들이 스탠튼시 레수 애비뉴 7000 블록에서 미상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관들은 도착하자마자, 거리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만 49세 남성과 만 76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두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산타아나에 거주하는 만 49세 남성 후안 크리스탈리나스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 76세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복수의 용의자들은 경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스씨는 복수의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만 76세 남성을 돕기 위해 차량을 멈춘 피자 배달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반 수사관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이 수사에 수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용의자 3명의 신원은 북부 및 남부 조직폭력단 단속팀(GET), 기술수사부(TIU), 특별단속국, 미국 연방보안관 태스크포스, 미국 세관 및 국경 수비대 및 스탠튼, 요르바린다, 통합 북부 순찰대의 도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오렌지 카운티의 세 곳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헨리 디엘 레(만 19세),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아드리안 카스타네다(만 19세),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데미안 이반 마요르가(만 18세)를 체포했습니다. 세 용의자 모두 살인 혐의로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오렌지 카운티 보안국 강력반 수사관에게 714-647-7000으로 연락하거나 오렌지 카운티 범죄 방지 센터(1-855-TIP-OCCS)를 통해 익명으로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